

# 박두진의 초기시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靑鹿集』, 『해』를 중심으로

제 출 자 : 이 지 원(2006. 6. 20.)

## 목 차

### 1. 서론

### 2. 색채 이미지의 양상과 그 의미

2-1. 흑색의 이미지 : 절망과 공포의 현실

2-2. 적색의 이미지 : 투쟁과 강렬한 생명력 표상

2-3. 금색의 이미지 : 초월과 불멸의 영원성 추구

2-4. 청색의 이미지 : 이상 세계와 고향회귀 희구

### 3. 결론

## 1. 서론

이 글은 박두진 시의 의미를 보다 발전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박두진 시 연구는 크게는 기독교적 정신 세계에 대한 논의와 청록파와 관련하여 자연의 세계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 양분될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립되어 있는 논의는 그의 시창작 방법의 근본적인 토대가 신과 자연에 대한 시적 추구라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박두진 시작품 속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 사상도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정신의 구현에 있다고 볼 때<sup>1)</sup> 그를 반드시 종교시인이라 따로 규정지을 이유는 없다. 또한 청록파 시인에 한정시켜 자연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천착해온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은 이젠 낡은 느

1) 임영주, 『박두진의 생애와 문학』, 국학자료원, 2003, 25면.

깜마져 준다.<sup>2)</sup>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전기적 사실에 치중하여 그의 시를 재단했던 관습화된 방법적 접근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한 시인의 시 세계를 파악함에 있어 시의 언어는 시인의 정서를 함축하는 기호인 동시에 독자가 그 시인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때 시어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맥박 치는 시인의 정서적 작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 보아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박두진의 시에 나타나는 중요한 시 표현 방법의 하나인 색채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시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 토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색채는 물리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각에 감응되는 광선의 파동에 지나지 않지만, 시인에게는 감정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색채는 의미를 지각시킬 수 있는 힘은 약하지만, 감각에 대해서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sup>3)</sup> 나아가 색채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은<sup>4)</sup>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시의 형태가 하나의 기호이며 인간의식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시가 표현하는 색채 이미지는 시인의 정서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상의 상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박두진 시가 구사하는 풍부하고도 다양한 색채어는 그의 시 세계를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이고 있다. 이 색채 이미지는 박두진의 시 세계를 형성하는 시적 장치인 한편 그의 시를 해독하는 열쇠가 된다. 다시 말해 박두진의 시에 특정한 색채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이미지는 그의 시 세계 전체를 해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색채 이미지 연구가 있으나,<sup>5)</sup> 박두진 시의 색채 이미지를 ‘청록파’와의 연관하에 단편적으로 살피는 데 그치고 있다.<sup>6)</sup> 이는 『靑鹿集』이 주는 일차적인 색채 이미지에 고착되어 그 편견을 드러내는데, 박두진 시 자체에 대한 온전한 연구라고 볼 수 없다. 한 시인의 시 세계를 살핌에 있어 그의 전기적 사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창조한 ‘텍스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 외적 조건을 밝히는 데 치우친다면 “시집 『靑鹿集』에서 ‘靑’의 의미는 시대와 결부될 때 일제치하 어둠의 공간으로 그 상상력을 확충시켜 준다. ‘푸른’ 사슴은 없기 때문이다”와<sup>7)</sup> 같이 협소한 테두리로 선 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본고는 박두진 시를 독자적인 자리에 위치시킨 후, 그의 시가 품고 있는 색채 이미지가 어떠한 정서적 작용을 거쳐 텍스트 속에 형상화되는지 살펴보

2) 이러한 점에서 박두진 시에 대한 상상력 연구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3) 채수영, 『한국현대시의 색채의식 연구』, 집문당, 1987, 14-15면에서 재인용.

4)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살림, 2003, 4면.

5) 신진, 『청록집』의 색채이미지 연구, 『국어국문학』 제4호, 1982. 1.

6) 박두진은 청록파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순수하며 가장 자연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자연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자연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세계를 강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청록파의 두 시인과는 달리 처음부터 자연에 대한 특이한 관념적 신앙을 하나의 이상으로서 확립하고 있었다(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개관』, 정음사, 1974, 283면). 본고 또한 자연 속에서 추구된 박두진의 시 세계가 어떤 기제로 형상화되었는가를 밝히는 연구 중의 하나일 수 있다.

7) 채수영, 앞의 책, 15면.

고자 한다. 나아가 이 분석을 통해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함축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색채 이미지를 분석함에 있어 주관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본고는 논의의 보편성을 얻기 위해 색채 심리 이론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sup>8)</sup> 박두진 시는 뚜렷한 색채어로 나타나는 시어가 있는 한편 색감각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는 이를 한꺼번에 포괄하여 다룰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두진의 색채 이미지를 밝히는 이러한 작업은 그의 시세계의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지속되는 시적 바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 시인에 의해 창조된 이미지가 그의 전기적 여건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듯이,<sup>9)</sup> 본 논의가 그의 전체시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본고는 이 점에서 작은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그의 초기시 『靑鹿集』, 『해』로 한정한다.<sup>10)</sup> 본고는 乙酉文化史(1946)에서 간행한 『靑鹿集』과, 汎潮社(1982)에서 간행한 『朴斗鎭全集1』 속의 『해』를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그런데 『靑鹿集』에 수록된 몇몇의 작품은 『해』에도 중복 수록되어 있다. 이 경우 본고는 『靑鹿集』을 우선하여 인용할 것임을 밝힌다.

## 2. 색채 이미지의 양상과 그 의미

### 2-1. 흑색의 이미지 : 절망과 공포의 현실

대개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한다. 어둠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판단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각적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이런 심리를 간파하여 생긴 태양 숭배 사상은 이후 문명화된 인간에게조차 ‘검은색’을 두려움·중압감·답답함 따위와 함께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sup>11)</sup> 여기게 만들었다. 가령,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의 시들에서 ‘동굴’이나 ‘어둔 밤’ 등의 시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은 이러한 색채 상징과 무관하지 않다.

박두진 시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의 시에서 흑색의 이미지가 ‘검은’이라는 직접적 색채어로 나타나는 예는 많지 않다. 그러나 박두진이 구사하는 ‘어둠’, ‘밤’ 등의 간접적 색채 이미

8) 개개의 색채에 함축된 상징적 의의는 심리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의의는 여러 세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역사, 종교, 관습 및 미신에 의해 확립되어 온 것들이다. 그리고 이 상징적 의의에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전개되었던 인간의 감정과 관념들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정서는 매우 변화무쌍할 뿐 아니라 심리적 기질 또한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색채를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하기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색채에 대한 반응 가운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그리하여 색채 상징이나 색채 심리에 관한 연구는 과학적 원리에 보다 천착함으로써 심리·과학·문화·문학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파버·비렌, 『색채심리』, 김화중 옮김, 동국출판사, 1993, 184~221면 참조). 그런데 색채는 각 나라마다 그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색채 상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박두진 시를 색채 이미지로 접근함에 있어 이러한 점은 하나의 한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우리 풍토에 맞는 색채 이론을 중점적으로 인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보편성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9) 광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38면.

10) 본고가 『靑鹿集』, 『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초기시가 박두진 시 전체의 출발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반복적이고도 다양한 색채이미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1) 박영수, 앞의 책, 83면.

지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심리작용과 긴밀히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결합은 ‘검은’이라는 직접적인 흑색의 이미지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는 효과로 나타난다.

흑색의 이미지, 즉 ‘어둠’의 세계를 그가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는 다음 인용시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넘어서서 밤 새 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이글 애똥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나는 싫여…….

—「해」의 부분<sup>12)</sup>

이 시의 바탕색은 ‘어둠’이라는 흑색의 이미지이다. 이 ‘어둠’으로 표상되는 부정적 대상과 ‘해’로 표상되는 빛의 세계는 색채의 대비뿐만 아니라 의미에서도 이항대립되고 있다. 언뜻 보면 이 시는 빛이 ‘선’이고 어둠이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유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해’가 빛의 상상력 속에서 어둠을 장악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일면 현대인의 태양 숭배로까지 나아가는 이 시에서의 ‘해’의 상징은 불의 상징으로 변용됨으로써 파괴와 심판의 속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파괴와 심판의 과격이 되는 ‘어둠’은 화자를 절망에 잠기게 하는 암담한 현실의 투사물이다. 이에 화자는 그 ‘어둠’을 ‘살라먹고’ ‘해’가 솟는 벽찬 광경을 당찬 명령법으로써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광경은 단순히 감탄하여 바라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감정의 파동으로 강조된다. ‘어둠’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화자의 절망과 고통, 나아가 죽음의 심연을 가리키기<sup>13)</sup> 때문이다. 이 어둠이 깊을수록 ‘해’는 화자의 눈에 더욱 더 환하게 비쳐질 것이다. 그래서 ‘맑양게 씻은 얼굴’, ‘이글 이글 애똥 얼굴’로 한껏 의인화된 ‘해’의 심상은, 칠흑같은 화자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 화자는 ‘해’를 등장시키고 있으며, 이 ‘해’에 의탁하여 ‘이글 이글’ 타오르는 자신의 파괴 감정을 이입하려는 욕구를 드러낸다. 절망과 고통을 질식시키고 불태우기 위한 ‘해’의 속성은 더욱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순간의 심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불로 변용된 ‘해’의 광포함은 ‘어둠’에 대한 화자의 파괴적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로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화자가 이 ‘어둠’을 추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빛’을 불러들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흑색의 색채 이미지와 빛의 연결 방식은 다음의 인용시들에서도 일관성 있게 발견된다.

① 어둠은 가거라. 우름 우는 짐승 같은 어둠은 가거라. 짐승같이 떼로 몰려 벼랑으로 가거라.  
햇별살 등에 지고 벼랑으로 가거라

12) 『朴斗鎭全集1-해』, 26면.

13) 색채심리학자 파버·비렌은 박영수와 마찬가지로 흑색을 永眠을 불러일으키는 색, 즉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 보고 있다(파버·비렌, 앞의 책, 82면).

② 달 밝은 밤, 있는것 다아 잠들어 괴괴—한 보름밤에 오십시오  
……빛을 거느리고 당신이 오시면 밤은 밤은 永遠히 물리간다 하였  
으니 어쩐지 그 마즈막 밤을 나는 푸른 달밤으로 보고 싶습니다.  
푸른 月光이 금시에 활달 화안한 다른 光明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엄하고 이상한 밤이 보고 싶습니다.

③ 꽃도 새도 짐승도 새로 태어 나, 밤이란 다시는 오지 않는 아침에, 하늘대는 바람 맞아  
핏줄 들 새로 맑고, 우르러 호흡 갈아 쉬면, 호흡 갈아 쉬면, 너도 나도 다 한가지, 허파  
며 심장이며 새로 불어 뛰놀고, 우리 모두 번쩍! 눈 새로 밝아지는, 눈 새로 밝아 지는,  
아아, 진정 솟으렴! 태양……

인용시 ①에서 ‘어둠’은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다. 여기서의 짐승은 『靑鹿集』, 『해』에 등장  
하는 짐승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성격을 띤다. 즉, 산 속을 채우는 다채로운 식물, 날짐승  
들은 그의 시의 싱싱한 바탕을 이루는 자연물들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화자는 ‘어둠’을 ‘짐  
승’으로 비하함으로써 그 ‘어둠’이 어떠한 존재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벼랑’으로 내몰아야  
하는 ‘악’에 불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햇별살’을 내세워 ‘어둠’이라는 절망과 대결하고  
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의 표현이다. 따라서 ‘어둠’을 물리치는 ‘햇별살’의 이미지는  
‘햇별살’ 본래의 섬세하고도 정적인 면보다는, 역동적 이미지로써 절망을 극복하는 초월의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인용시 ②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화자는 ‘밤은 밤은’으로 ‘밤’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무거운 고통의 총량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반복적인 ‘밤’의 의미는 ‘괴  
괴—한 밤’ 위에 겹쳐지면서 더욱 암흑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여기에서도 ‘보름밤’은 한  
측면으로는 밝은 심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거부되는 ‘어둠’의 지속선상에  
놓여 있다. 이때 ‘당신’이 ‘거느리고’ 오는 ‘빛’은 ‘보름밤’ 즉, ‘괴괴—한 밤’을 ‘영원히’ 제거하  
는 막강한 위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까닭에 이 시에서의 ‘빛’은 이상적 세계에 대한 화자  
의 확고한 믿음으로 추구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이렇게 ‘푸른 月光이 금시에 활달 화안한 다른 광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장엄하고 이상  
한 밤’을 고대하는 화자의 마음 상태는 그 ‘이상한 밤’이 그토록 믿기 어렵고 경이로운 만큼  
‘어둠’에 유쾌해 있던 그의 ‘밤’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절박했음을 짐작케 한다.

인용시 ③에서의 ‘밤’도 ②의 의미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에서 화자는 ‘어둠’이 ‘다  
시는 오지 않’는 감격, 새롭게 만물이 재탄생하는 ‘아침’을 목도하기 위해 ‘태양’의 빛을 갈구  
하고 있다.<sup>17)</sup> ‘아아, 진정 솟으렴! 태양’은 화자의 빛에 대한 열망을 한꺼번에 압축하는 것이

14) 『朴斗鎭全集1-해』, 33면.

15) 『靑鹿集』, 80~81면.

16) 『朴斗鎭全集1-해』, 30면.

17) 박두진은 자신의 작품 속의 태양 이미지에 대해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질서와 미와 진실과

다. 이러한 화자의 내면에는 그의 암흑한 절망과 고통이 짙게 깔려 있다. 그러므로 ‘태양’은 이 절망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대상일 것이다. 즉, ‘어둠’이 화자가 처한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쬐는 태양’은 그 현실에 대한 부정 정신이며, 절망을 극복하고 도달되는 구원의 상징이다.

이처럼 ①, ②, ③에서 절망과 고통을 함축되는 화자의 관념은 흑색의 이미지, ‘어둠’, ‘밤’에 투시되어 형상화된다. 이때 ‘어둠’, ‘밤’은 절망이라는 지하의 이미지로, ‘해’, ‘햇볕살’, ‘태양’은 ‘어둠’, ‘밤’을 지배하는 천상의 이미지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빛’은 ‘어둠’의 수렁에 빠진 화자의 쓰린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그것으로부터 끌어올려 주는 형이상학적 상징물이다.

사실 어둠과 빛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며 시시각각 상호침투하는 관계에 있다. 즉,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나타나고,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소멸한다. 그러나 화자가 빛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한 흑색은 그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부정의 징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흑색의 이미지가 절망을 한 단계 넘어서서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빛’은 그 구원의 의미를 빼앗긴다. 오히려 ‘빛’은 다음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공포감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진달래 붉게 피고,  
두견새며 녹음 따라  
피꼬리도 와서 울고 하면,  
숲은, 새색시 같이  
즐거웠다.

옥어진 녹음 위에 오락 가락  
검은 구름떼가 물리고, 이어, 성난 하늘에,  
우루루 천둥이며, 비바람에, 파란 번개스불이 질리고 하면,  
숲은 후들 후들 무서워서 떨었다.

—「숲」의 부분<sup>18)</sup>

인용시 「숲」은 의인화된 자연물들을 통해 화자의 공포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숲에 ‘천둥’과 ‘비바람’, ‘파란 번개스불’을 불러모으는 것은 ‘검은 구름떼’이다. 박두진 시에서 구름이 백색의 이미지일 때 그 구름은 평화로운 자연물들 중의 하나로 구성된다. 그러나 문제는 구름이 ‘검은 구름’이라는 흑색의 이미지로 변주될 경우에 나타난다. 이 시에서도 ‘검은 구름’이 갖는 흑색의 이미지는 빛의 가장 순수한 본체로부터 극단적으로 음극화된 것으로서,<sup>19)</sup> 매우 불길한 징후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검은 구름떼’, ‘천둥’, ‘비바람’, ‘파란 번개스불’은

진선의 영원한 성취를 이상하였고, 완전하고 그지없이 치열하고, 무한대한 회원을 더할 수 없는 유일절대한 시적 형상의 실체를 잡아 고창해본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92, 385면).

18) 『靑鹿集』, 88~89면.

19) 본래 백색은 빛의 가장 순수한 본체라고 한다. 이 백색은 음극을 향하여 가면 청색으로 응축되었다가 흑색으로 귀착되고, 또 양극을 향할 경우에는 황색으로 응축되었다가 적색으로 귀착된다(파버·비렌, 앞의 책, 82면).

‘숲’의 평화와 순수를 파괴하는 악마적 공격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일련의 재앙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은 ‘숲’이라는 객관적 상관물로써 공포에 ‘떨’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가 지금까지 살핀 어둠의 시들과 다른 점은 ‘파란 번개사불’이 내포하는 빛의 이미지가 구원의 빛과 상반되는 공포의 빛이라는 것이다. 단지 화자는 ‘후둘 후둘’ 무서워하며 그 공포를 견디고 있을 뿐,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진 않는다. 왜냐하면 흑색의 ‘구름떼’를 위시한 천둥, ‘비바람’, ‘파란 번개사불’은 ‘숲’이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파괴적인 공격성을 띠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 화자의 항일성의 심리적 작용은 무기력하게 정지된다. 이것이 이 시에 구원의 ‘빛’이 빠져 있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박두진이 어떠한 경로로 흑색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박두진의 시에서의 흑색은 화자의 어둡고 불행한 내면과 즉각적으로 연결된다.<sup>20)</sup> 화자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는 인용시 ①, ②, ③에서처럼 상승적 상상력 속에서 천상의 ‘빛’을 갈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어둠의 힘에 일방적으로 점령당한 채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인용시 「숲」에서처럼 빛은 자취를 감춘다.

이렇듯 박두진이 ‘어둠’ 속에서 빛을 갈구하는 근원적인 까닭은 빛이 결여된 세계 안에서 느끼는 불안한 존재인식에서 연원한다. 이 불안감이 심화되었을 때 박두진 시에서 흑색의 이미지는 암울, 고통, 절망, 암담,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옷을 걸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둠을 거부하고 밝음을 좇는 항일성의 속성은 박두진 자신만의 감정이 아니라 다수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일 수 있다.

## 2-2. 적색의 이미지: 투쟁과 강렬한 생명력 표상

박두진 시에서 적색의 이미지는 ‘붉은’이라는 직접적 색채어로 나타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붉은 색감각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박두진은 자연물과 연결시켜 적색의 이미지를 텍스트 안에 채워넣는다. 나열하자면, ‘해’, ‘꽃’, ‘불’, ‘피’, ‘피빛’, ‘火焰’, ‘붉은’, ‘붉게’, ‘태양’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이 적색의 이미지는 자연물들을 수식 또는 채색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그 자체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적색은 무엇보다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인간은 피를 보며 그 적색에서 강렬한 생명의 힘을 느끼는 것이다. 더욱이 생명력은 생존경쟁 사회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투쟁정신으로 나아간다. 오늘날에도 적색은 여전히 생명, 유혹, 투쟁을 상징하며,<sup>21)</sup> 피의 색깔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이미지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박두진의 시에서 적색의 이미지는 크게 봤을 때, 투쟁과 뜨거운 생명력으로 나타난다. 적색의 이미지가 투쟁과 심판의 의미를 표상할 때는 불의 이미지와 융합하기도 하는데,<sup>22)</sup> 이는 색채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매우 유사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20) 하워드 선·도로시 선, 『색채심리와 색채치료』, 나선속 옮김, 예경, 2003, 149면.

21) 박영수, 앞의 책, 76면.

22) 예로부터 적색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을 뜻하는 색깔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태양의 색과 무서운 짐승들을 쫓아주는 불의 빛깔을 적색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이 보기에 태양은 붉게 타오르는 불덩어리이고,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불을 피워놓으면 근접하지 못했기에 적색은 그 무엇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나아가 사람들은 귀신이나 악한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적색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는데, 이는 적색이 불의 색이므로 가능했다(위의 책, 51면).

山, 山, 山들! 累巨萬年 너히들 沈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업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  
어 오를 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피사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리사순 칩  
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香峴」의 부분23)

화자는 침묵하는 산을 ‘火焰’의 산으로 비약시키고 있다. 그 순간 ‘火焰’은 ‘沈默’하는 산을 향한 충격의 신호탄이자 불과도 같은 생명의 에너지이다. 그래서 ‘확 확 치밀어 오를 火焰을’ ‘기다려도 좋으랴?’는 화자의 물음은 기약을 넘어서서 그 생명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나타난다. ‘봉우리’, ‘마루’의 딱딱한 각질을 뚫고 수직상승하는 그 강렬한 생명력을 화자는 적색의 이미지와 융합한 불의 시어를 통해 그려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확 확 치밀어 오를 火焰’을 불의 분노로 읽을 수 있다. 암묵적인 제압에 일종의 대결의식으로 나아가는 ‘火焰’은 극단적인 불의 상상력 속에서 뜨거운 활력과 함께 혁명으로 상징된다. 이는 곧 ‘沈默’의 폭발이며 존재의 폭발이다. 화자는 침묵을 흔들어 잠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뜨거운 생명력으로 달구어지거나, 분노로 분출되는 ‘火焰’은 강렬한 상승에의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시적 효과는 적색의 이미지가 매우 격정적인 목소리에 실려 표현된다는 사실이다. 즉, ‘火焰’의 이미지를 드러내기보다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훨씬 강하다.

이에 비해 ‘피사내’는 오랜세월의 침묵이 사실은 투쟁의 역사, 즉 피의 역사였음을 드러내는 차원이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리’와 ‘토끼’가 ‘즐거이 뛰는 날’은 곧 절대평화의 상징이며 용서와 화해의 장치이다. 이런 점에서 ‘피사내를 잊은’을 ‘투쟁을 버린’으로 바꿔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피’는 그 자체로 생명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투쟁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리’로 대변되는 맹수의 입장에서서는 싱거운 투쟁이 될 것이고, ‘토끼’로 대변되는 약한 짐승의 입장에서서는 목숨을 건 피흘리는 투쟁이 될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투쟁을 버리자고 제안한다. 이것은 곧 비극의 승화이다. 이처럼 생명력과 투쟁의 의미를 화자는 ‘火焰’과 ‘피사내’의 적색의 이미지로써 형상화함으로써 진정한 생명력과 새로운 질서의 회복을 갈구하고 있다.

일히들이 으르덴다 양떼가 무절린다. 일히들이 으르대며 일히가 일  
히와 더불어 싸운다. 살점들을 물어뜯다 피가 흘른다. 서로 죽이며  
작고 서로 죽는다. 일히는 일히로 더불어 싸우다가 일히는 일히로 더  
불어 멸하리라.

처참한 밤이다 그러나 하늘엔 별—별들이 남아있다. 날마다 아  
직은 해도 돋는다. 어서 오너라.……황폐한 땅을 새로 파 이루고  
너는 나와 씨앗을 뿌리자 다시 푸른 산을 이루자. 붉은 꽃밭을 이  
루자.

23) 『靑鹿集』, 71면.

정정한 푸른 장생목도 쉬고 한철 났다 스러지는 일년초도 쉬  
자. 잣나무 오얏 복숭아도 쉬고 들장미 석죽 산국화도 쉬오자. 싹  
이 나서 자라면 이어 붉은 꽃들이 피리니……

—「푸른 하늘아래」의 부분<sup>24)</sup>

이와 같이 ‘일히’와 ‘양떼’가 ‘으르대’고 ‘무절’리는 광경은 이 시의 시적 긴장을 이룬다. ‘일히’와 ‘양떼’는 각각 악과 선으로 대유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현실을 ‘처참한 밤’이고 ‘황폐한 땅’이라 표현한다. ‘양떼’가 ‘일히’에 의해 ‘무절’리는 것은 물론, ‘일히’가 ‘일히’와 더불어 서로를 공격하고 ‘살점들’을 물어뜯는 이 비극적인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이때 이 ‘피’로 설정되어 있는 적색의 이미지는 혈투와 생명의 말살을 의미한다.

매우 비관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러나 하늘엔 별—별들이 남아있다’. ‘날마다 아직은 해도 돋는다’라며 이 참담한 상황을 희망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이 극복의 지향점은 평화의 복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황폐한 땅을 새로 파 이루고/너는 나와 씨앗을 뿌리자’, ‘붉은 꽃밭을 이/루자’는 화자의 제의, 그리고 ‘싹이 나서 자라면 붉은 꽃들이 피리니……’라는 기대는 혈투로 황폐해진 삶의 현장을 왕성한 생명력의 세계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뜨거운 몸짓이다. 이때 ‘붉은 꽃’은 새로운 생명력의 결실로 상징된다.

비극적인 전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자연을 표현하는 독특한 시적 방법에 있는 듯하다. 한 예로 ‘정정한 푸른 장생목도 쉬고 ‘한철 났다 스러지는 일년초도 쉬오/자’라는 표현이 그러하다. 이러한 정신의 광장은 무수한 식물들을 일정한 구분없이 포용하고 있으며, 그 무엇도 주가 되거나 거절당하지 않는 조화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이것이 바로 ‘황폐한 땅’을 ‘붉은 꽃’의 세계로 변용시키는 박두진 고유의 시적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두진 시는 현실의 어둠이나 위협 곁에 늘 적색의 이미지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해」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sup>25)</sup> 이러한 점은 다음의 「노고지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빼앗! 노글 노글 나는 떴어라. 동동동 하늘 높이 떠서 놀아라.

냉이꽃 피어 있는, 썸배꽃 피어있는, 보리밭 이랑 새에 알을 낳았어라. 남 몰래 남 몰래 알을 낳았어라.

알을 내가 품어 까면 새끼 새가 나와라. 날 닮아 우짖어 엘 새끼새가 나와라. 종종종 지리지리지리종 내 새끼가 나와라.

24) 『靑鹿集』, 91~92면.

25) 「雪岳賦」가 보여주는 적색의 이미지도 「해」에 견줄 만하다. 사실 적색의 이미지는 불의 상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원형적 상징(생명성·부활·재생·정화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 「雪岳賦」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雪岳賦」가 「해」와 함께 부활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온 때문이다. 다만, 적색의 이미지가 갖는 강렬한 생명성이 이 시에서도 잘 나타나므로 부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포기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러라. 한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달밤엔/杜鵑! 杜鵑도 와 울어라.//언제 새로 다른太陽 다른太陽이 솟는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復活할것도 믿어본다.”

누가 와서 기웃대면, 내새끼 보금자릴 어니 뱀이 넘실대면, 나는, 불이 되어 쪼아라. 살  
같이 내리박혀 불이 되어 쪼아라. 내 새끼 품에 안고 불이 되어 싸워라. 지리지리중! 지  
리지리질 중! 내새끼들 자라나면 온 들이 노래여라.

—「노고지리」의 부분<sup>26)</sup>

‘남 몰래’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되기를 기다리는 어미새의 보호본능을 노래하는 시이다. ‘낳았어라’가 완료형이고 ‘나와라’가 진행형이며, ‘누가 와서 기웃대면’이 가정법인 것을 보면, 이 시는 미래에 있을 어떤 위험이나 시련을 예비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어미새는 날아 오르는 자유의 혼으로 암시되는 어린 새를 넘보는 ‘뱀’을 부정적인 대상으로<sup>27)</sup> 여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뱀’은 자연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서 자연의 질서를 변칙적인 것으로 만드는 특성을 갖는다.<sup>28)</sup> 이 시에서도 역시 ‘뱀’은 ‘새끼’의 ‘보금자릴 넘실대’는 악의 상징으로 설정되어 있다.

뱀의 강력한 독에 새끼새의 목숨을 빼앗길 수 없는 어미새의 보호본능은 ‘나는, 불이 되어 쪼아라’라고 외친다. 이로써 ‘불’이 갖는 적색의 이미지는<sup>29)</sup> ‘뱀’에 대한 어미새의 격렬한 분노, 위협, 적개심, 투쟁의 의미로 나타난다. 일종의 도덕성을 갖는 ‘불’의 상상력과 결합한 이 어미새의 태도는 반(反)가치에 대항하는 전사의 이미지를 표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불의 상상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불’은 어미새의 삶의 본능과 파괴의 본능을 동시에<sup>30)</sup>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미새의 이중 본능은 새끼새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과 ‘뱀’을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이다.

여기에 이르면 인간이 불의 빛깔을 왜 적색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어떤 맹수라도 불을 두려워했고, 이 불이 표상하는 적색은 그 어떤 위험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 2-3. 금색의 이미지: 초월과 불멸의 영원성 추구

박두진 시에서 금색 이미지는<sup>31)</sup> 그의 독특한 상상력의 경로를 거쳐 표현되고 있다. 금색은 순수 색채 이미지가 아니다. 이것은 ‘황금’이란 물질을 인식함에 있어 그가 체험한 감정이나 이념이 개입된 색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황금은 그 물질적 특성으로 인해 존귀성이나 영원성, 불멸성 등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모두는 한꺼번에 초월적 가치로 묶여질

26) 『朴斗鎭全集1-해』, 75면.

27) 박두진은 많은 동물들 중에 유독 뱀에 대해서만 철저히 적개심을 발휘하고 있다. 뱀이 부정적인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응교는 박두진이 지니고 있는 기독교적 원죄의식의 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김응교, 앞의 책, 187면).

28)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장영수 옮김, 청하, 1989, 303면.

29) 적색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불과 피의 상징이다(파버·비렌, 앞의 책, 221면).

30) 가스통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민희식 옮김, 삼성출판사, 1982, 43면.

31) 박두진 시에서 금색 이미지는 엄밀히 말하자면 황색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금색’은 그의 텍스트에서 구체성을 띠고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황색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본고는 금색의 이미지를 박두진이 구사하는 중요한 채색어 중의 하나로 분류, 유형화하였다.

수 있다. 나아가 금이 황색을 띠기 때문에 금이 갖는 물질적 가치와 황색의 이미지는 동질성을 획득한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박두진이 금색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황금에 대한 일종의 환상에 기인한 듯 보인다. 이는 영원에 대한 환상, 불멸에 대한 환상, 존귀성에 대한 환상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는 금색에 황금의 상징을 투사함으로써 황금과 같은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sup>32)</sup> 이로써 금색은 그 동질성에 의해 절대적 가치라는 이미지를 입는다. 결국 금색의 이미지는 황금의 상상력이 산출해낸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개인적 환상이 덧씌어져 재창조된 이미지이다. 그러나 금색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세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의 환상은 절실한 소망과 이음동의어가 된다.

이러한 금의 상징에 황색이 결합한 금색의 이미지는 그의 시 곳곳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 박두진 시가 품은 다채로운 색채 이미지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색의 이미지가 무덤 옆에 위치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게 여겨진다.

北邙 이래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만 무덤들 외롭지 않아이.

무덤속 어둠에 하이얀 髑髏가 빛나리. 향기로운 주검의사내도 풍기리.

살아서 설던 주검 죽었으며 이내 안 서럽고, 언제 무덤속 화안히 비취줄 그런 太陽만이 그리우리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빠이 빠이 배, 뱃종! 뱃종! 메사  
새들도 우는데 봄별 포군한 무덤에 주검들이 누었네.

—「墓地頌」의 부분<sup>33)</sup>

이 시는 무덤의 어둡고 우울한 그림자를 부각시키진 않는다. 오히려 화자는 죽음의 세계를 역설적인 시적 에너지로 전복시키는 새로운 의지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무덤 속에서 근원적 힘을 기다리는 화자의 낙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시어는 ‘금잔디’, ‘빛나는 髑髏’, ‘太陽’ 등이다.

먼저 ‘금잔디’는 ‘北邙’과 ‘무덤들’이 유발하는 죽음의 이미지와 상당한 거리를 갖는 시어이다. 화자는 왜 잔디를 ‘봄잔디’나 ‘노란 잔디’라 표현하지 않고 굳이 ‘금잔디’라 표현하는가. 이를 생각해보면, 금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상에 의해 내포된 수많은 상징과 마찬가지로 윤이 나고 빛을 발하는 황금의 이미지는 태양의 주제들을 나타내준다.<sup>34)</sup> 더욱이 금색은 태양의 상징색인 것이다.<sup>35)</sup> 그러므로 ‘금잔디’로 강조되는 시적

32) 황색은 금색을 대표하는 색이다. 인류가 많은 금속 중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었는데, 금은 변화지 않는 영원성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귀한 금속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 빛깔은 밝은 빛을 뿜어내는 태양의 상징색이기도 하다(박영수, 앞의 책, 79면).

33) 『청록집』, 72~73면.

34)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앞의 책, 278면.

35) 박영수, 앞의 책, 79면.

장치는 ‘무덤속’을 ‘화안히 비취’주는 ‘太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 결과 ‘금잔디’는 ‘무덤속 어둠에 하이얀 髑髏가 빛’나는 부활의 이미지, 이 시의 주제의식인 태양으로 표상되는 초월·불멸의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듯 금색의 이미지는 태양의 상상력과 독특한 정서적 용화를 꾀하고 있다. 박두진 스스로도 “죽음에서 부활을 갖는 그런 염원을 불멸의 종교적인 믿음으로 가져 보고 노래해 보고 신원하였다”고<sup>36)</sup> 말한 것처럼 그의 ‘불멸’에의 염원을 금색의 상상력을 통해서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솟으렴! 태양……

(중략)

별들 다아 새로 씻겨 빛나고, 온 누리, 눈물 어린 누리 위에, 금빛 싸아아 내려 쬐는 빛의 줄기…… 유량한 울림 속에 청산은 모두 귀를 열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 부를 푸른 나무들!

꽃도 새도 짐승도 새로 태어 나, 밤이란 다시는 오지 않는 아침에,

—「훨훨 날래 떨어」의 부분<sup>37)</sup>

이 시에 등장하는 ‘별들’은 태양의 등가물이다. 화자는 상상 속에서 ‘별들 다아 새로 씻겨 빛나’면 ‘누리 위에’ ‘금빛’의 줄기가 쏟아지는 것을 본다. ‘금빛’이 내려 쬐다는 것은 금의 빛깔이 밝은 빛을 뿜어내는 태양의 상징색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금빛’으로 ‘싸아아 내려 쬐는 빛의 줄기’는 곧 태양빛의 줄기이다. 이런 점에서 ‘별’과 마찬가지로 ‘금빛’은 태양의 등가물이다. 이에 ‘금빛’은 곧 천상의 초월적 권능을 입고 등장한다. 금빛 줄기가 온 대지 위에 내리쬐어야만 지상의 ‘꽃’, ‘새’, ‘짐승’ 모두 ‘금빛’을 ‘호흡’하며 재생을 예비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자는 ‘밤이란 다시 오지 않’을 ‘아침’의 ‘영원성’이 열리는 것을 금빛의 환상적 공간 안에서 갈망하는 것이다. 또한 이 ‘아침’에 금빛으로 물들은 자연물들 역시 영원한 존재로 승격된다.

이렇게 자연물들이 영원한 존재로 승화되는 것은 이 시에 등장하는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금빛’이기에 가능하다. ‘밤’이 ‘다시는 오지 않’는 ‘아침’은 영원성으로 빛나게 되고, 이 감격에 넘치는 신비로운 아침의 광경은 ‘금빛’의 초월적 속성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찬란한 탄생 공간이면서 화자의 상승의 이념을 형상화한다.<sup>38)</sup> ‘밤’을 극복한 이 환상적인 ‘아침’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불멸에의 기원, 온갖 자연물들이 새로 ‘번쩍’하며 재생하는 성스러운 의식, 이러한 순간의 심리 상태가 반영된 대상이 바로 ‘금빛’인 것이다. 여기에 특별히 ‘금빛’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의미가 놓일 수 있다.

이처럼 박두진 시의 금색의 이미지는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금에 대한 시인의 최초의 환상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 환상은 인간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영원성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솟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 오고,

36)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375면.

37) 『朴斗鎭全集1-해』, 30면.

38)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앞의 책, 278면.

‘철철철 흐르듯’이 역동적 이미지로 전개되는 인용시 「청산도」는 자연의 생명력이 잘 나타나 있다. 이때 ‘질푸른 산’이 색채의 과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은 여타의 시들과 사뭇 다르다. 물론 빛의 파장에 따라 ‘산’의 채도는 화자에게는 질푸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색채의 과잉은 화자의 가슴속의 충일해 있는 기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sup>40)</sup> 왜냐하면 ‘우뚝 솟은 산’과 ‘철철 흐르듯’, ‘솟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 등의 표현에는 산을 바라보는 화자의 벽찬 환희가 암암리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벽찬 감정 상태는 그냥 산일지라도 화자의 시각에 ‘질푸른 산’으로 침투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의 이상 세계로 꿈꾸는 정신 과정에 있어 화자의 감정이 과잉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그럼으로써 화자는 우리에게 그 산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인간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의 근원지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이때 ‘질푸른 산’으로 내려오는 ‘금빛 기름진 햇살’에는 언제까지고 ‘질푸른 산’을 끊임없이 지속시키고 싶은 화자의 열망이 이입되어 있다.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의 아름다움을, ‘무성한’ 산의 생명력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는 ‘금빛 기름진 햇살’에 이르러 금색의 상상력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빛 기름진 햇살’은 산을 초월적 세계로 이끌어내는 매개물이다. 그 결과 이 시에서 산은 ‘금빛’의 이미지에 의해 독특한 미적 가치로 승화된다고 할 수 있다.

① 새로 푸른 동산에 금빛 새가 날러 오고 붉은 꽃밭에 나비 꿀벌  
매가 날러들면 너는 아아 그때 나와 얼마나 즐거우랴.

—「푸른 하늘아래」의 부분<sup>41)</sup>

② 홀로 내 앉은자리 풀 새로 돌아나고, 따사한 어깨 위엔 금빛 새 떼 내려 앉고, 온 골,  
별 밝은 골 마다 피빛 장미 피어나면! 나는 울어도 좋아라. 새로 푸른 하늘 아래, 내사  
홀로 앉아 울어도 좋아라.

「들러오는 노래 있어」의 부분<sup>42)</sup>

인용시 ①과 ②는 여러 자연물들을 통해 밝고 건강한 생명력을 노래한 예들이다. 그런데 이 자연은 화자가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 평범한 풍경이 아니다. ①과 ②의 공통점은 ‘새로’라는 부사어가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포착할 수 있는 점은 파괴된 자리에 다시 싹트는 생생한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즐거우랴’, ‘나는 울어도 좋아라’라는 화자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자연의 재탄생을 얼마나 고대해왔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재탄생한 건강한 자연 위에 ‘금빛 새’, ‘금빛 새 떼’가 ‘날러 오고’, ‘내려 앉’는다는 표현은

39) 『朴斗鎭全集1-해』, 43면.

40) 박영수, 앞의 책, 4면.

41) 『靑鹿集』, 93면.

42) 『朴斗鎭全集1-해』, 31면.

매우 의미심장하다.<sup>43)</sup> 화자는 겨울을 인내하고 ‘새로’ 태어난 자연, 혹은 무엇인가 파괴되었다가 ‘새로 푸른’ 자연을 감격에 차 바라본다. ‘울어도 좋’을 만큼 ‘즐거’운 화자는 이 자연의 생명력을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 자연을 불멸의 생명력으로 묶고자 하는 화자의 뜨거운 소망이 ‘금빛 새’로 형상화된다. 끊임없이 이 생명력을 지켜나가고 싶은 화자의 시각적 감각은 그것이 비록 ‘참새’일지라도 ‘금빛 새’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새’라는 평범한 자연물 위에 존귀한 존재라는 환상이 얹혀진다. 더불어 ‘금빛 새’와 구별되던 ‘나비’, ‘꿀벌레’도 평범한 자연물에서 존귀한 존재로 승화된다. 이것이 바로 박두진 시가 추구하는 평등한 자연의 질서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바로 금색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박두진을 ‘빛의 시인’이라 명명했지만,<sup>44)</sup> 금색이 상징하는 독특한 의미에는 주의를 기울이진 못한 듯하다. 금색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짙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색의 이미지가 ‘황금’이라는 금속의 특질 안에 환상이 개입됨으로써 인간의 존귀에의 욕망을 드러내는<sup>45)</sup> 한 방편이 됨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의 시 「푸른 숲에서」에서 잘 드러난다.

—금으로 만든 날개쭉지……나는 이런 푸섽에 떨어졌을 금 날개  
쭉지를 생각하며, 옛날 어릴적 童話가 그림다.  
—쫓겨난 王子와 公主의 이야기—

—「푸른 숲에서」의 부분<sup>46)</sup>

이 시에서 화자는 ‘금 날개쭉지’를 통해 잊었던 ‘어릴적 童話’를 반추한다. 일견 환상적 면모를 보이는 화자의 상상력은 비상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푸섽에 떨어졌을 금 날개쭉지’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으로 만든 날개쭉지’인가. 동화 속의 ‘王子’와 ‘公主’가 ‘쫓겨’났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을 상실한 것을 두고 ‘푸섽에 떨어졌을 금 날개쭉지’라고 표현했다고 가정하면, 금색의 이미지는 그 의미의 윤곽을 비교적 선명히 드러낸다. 첫째로는 존귀성의 추락이고, 둘째로는 파국을 맞아 좌절된 비상의 꿈이다.

그러나 비상이 금지된 ‘날개쭉지’는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불멸의 꿈을 간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좌절된 비상의 꿈과 불멸의 꿈 사이의 긴장은 현실을 초월하여 ‘옛날 어릴적 童話’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이다.

이 모두는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가라앉은 유년시절의 꿈을 형상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화자는 금의 상상력을 통해 동화 속의 ‘王子’나 ‘公主’를 부러워했을 법한 순수한 원체험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요컨대 이 금색의 이미지는 화자가 품었던 존재에 대한 존귀성 추구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유한한 현실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43) 박두진 시에 등장하는 동물은 이리, 늑대, 양, 토끼, 사슴, 칩벌레, 여우, 등속이, 사슴, 토끼, 오소리, 도마뱀, 농구리 등이다. 이 무수한 동물은 각기 나름의 비유를 갖지만, ‘금빛 새’처럼 관념적 모호성을 띠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금빛 새’는 박두진 시에 등장하는 동물군과 차별점을 갖고 있으며, 그 상징적 의미에 주목할 만한 가치를 제공한다.

44) 박두진을 ‘빛의 시인’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임영주는 ‘해’, ‘태양’, ‘별’ 등의 빛의 이미지에 주목하였다(임영주, 앞의 책, 33면).

45) 박영수, 앞의 책, 80면.

46) 『靑鹿集』, 99면.

펼쳐졌던 몽상의 세계로 회귀하고 싶은 잠재된 욕망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4. 청색의 이미지: 이상 세계와 고향회귀 희구

박두진 시에 있어서 청색은<sup>47)</sup>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색채 이미지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청색은 그의 초기시의 싱싱한 바탕색이다. 청색과 결부되는 자연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푸른 담(潭)’, ‘푸른 달밤’,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숲’, ‘청산’, ‘푸른 아침’, ‘푸른 잎 나무들’, ‘푸른 바다’ 등으로 다른 색채 이미지를 압도한다.

그러면 박두진이 이토록 청색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박두진의 초기시의 표지는 자연친화를 시적 바탕으로 한 ‘이상 세계의 동경’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기에 동조하였고 이에 따라 텍스트 속의 ‘청산’이 이 세계를 대변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박두진 시의 핵심적인 배경을 이루는 ‘청산’을 비롯한 청색의 이미지는 이상 세계를 노래하는 것만은 분명하나, 그 근처에 흐르는 시적 자원은 고향회귀의 염원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상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정서의 원형에는 원체험을 제공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내재한다. 구체적으로 박두진은 그 그리움에 ‘청색’의 색채를 입힘으로써 끊임없이 텍스트 속에 자신의 회귀본능을 형상화시킨다.<sup>48)</sup> 이러한 전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색채 이미지가 대체로 자연물에 한정된 반면, 청색의 이미지는 공간의 의미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시를 살펴보겠다.

바람아. 휘휘 휘 푸른 갈나무를 와서 부는 바람아. 너, 어디서 오니? 머언 저 바다, 어느 푸른 물구비에서 오니? 머언 저 산, 어느 푸른 나무 사이에서 오니?

바닷물에 씻기운 바닷물에 자라난, 내 귀는 두 조각 소라껍데기,  
바닷일이 그리워 주뻗거리고, 산바람에 불리운, 산바람에 자라난, 내 귀는 푸른 잎 나무  
잎사귀, 산윗일이 그리워 쭉긋거리다.

바람아. 내 귀를 와서 불어라. 소라마냥 울리게…… 바람아. 내 귀를 와서 불어라. 잎새

47) 청색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의미는 침착, 심원, 소극, 유구, 명상, 진실, 냉정, 적막 등이다(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6, 115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청색과 녹색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써온 관습적인 색채 사용 관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영어의 blue와 green이 모두 ‘푸르다’나 ‘파랗다’의 표제색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이다(황송문, 『신석정 시의 색채 이미지 연구』, 국학자료원, 2003, 30~31면 참조). 박두진의 시를 볼 때 청색의 이미지는 녹색과 혼용되어 나타나지 않고 청색으로만 일관성 있게 나타나므로 특별히 청색과 녹색으로 분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48) 이를 이해하기 위해 박영수의 논의는 참고할 만하다. 박영수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자연의 색채가 깊이 자리한다고 설명한다. 묘하게도 인간은 자연 색채를 벗어났을 때 향수병에 잘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를 고향으로 한 사람에 비해 농촌, 산촌, 어촌 등 경치 있는 곳을 고향으로 한 사람이 훨씬 더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는 자연의 색채 때문이다. 자연의 색채는 모성에 다름 아니다. 항상 곁에 있으면서도 묵묵히 받아줄 뿐,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곧 자연 색채인 것이다. 이런 자연의 색채를 크게 느끼진 못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인상을 받기에 한동안 고향을 보지 못하면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박영수, 앞의 책, 9~10면).

마냥 나뭇대개.…… 그 무에라고 불며 오는, 그 무에라고 불며 가는, 나는, 네 말을 안다.

(중략)

바람아. 내 귀를 와서 부는 바람아. 휘휘 휘 불고 가면, 너는, 또,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가니? 산으로 가니? 숲으로, 둥둥 저 구름이 가는 아래 숲으로 또 가니? 꽃을 보러……. 새를 보러…….

나는 여기 섰다. 바람아. 푸른 나무처럼 나 홀로 여기 섰다. 아직도 작고 나는, 그 누구가 그리워……, 그 누가 보고지워……, 그 누가 올 것 같아……, 나는 섰다. 그리운, 징— 울려오는 그의 마음, 그리운 그 모습. 그리운 그 품. 그리운 그 눈!……

—「나무처럼」의 부분<sup>49)</sup>

그리워하는 대상은 화자에게는 언제나 푸른 영상으로 나타난다. ‘푸른 물 바다’가 그러하고, ‘푸른 숲’이 그러하다. 화자는 ‘바람’에게 반복해서 ‘너, 어디서 오니?’, ‘너 어디로 가니?’라고 묻는다. 이러한 물음 안에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 대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곧 ‘푸른 곳’이다. 굳이 바람에 청색의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까닭은 화자의 잠재의식이 ‘푸른’ 어느 공간을 맹목적으로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화자는 바람이 ‘푸른’ 곳에서 온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일까. 먼저 제2연에서 화자의 귀는 ‘두 조각 소라껍데기’와 ‘푸른 잎 나무 잎사귀’로 은유되고 있다. 화자의 귀인 ‘두 조각 소라껍데기’는 ‘바닷일이 그리워 주뻗거리고’, ‘푸른 잎 나무 잎사귀’는 ‘산윗일이 그리워 쫓긋거리고’ 있다. 이렇게 바다의 일부분을, 산의 일부분을 신체의 일부분과 일체화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몸짓은 자신이 ‘푸른 바닷물’의 아이이며, ‘푸른 산바람’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두는 화자가 ‘씻기우’고 ‘자라난’ 원체험의 장소로 수렴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그 푸른 ‘곳’으로 회귀하고 싶은 갈망을 화자는 바람에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화자는 바람이 자신의 고향에서 왔다고 믿기에 ‘네 말을 안다’고 말한다. ‘무에라고’ 말하는 ‘바람’의 말이 먼 나라의 방언처럼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라, ‘내’ 고향의 언어이기에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화자는 ‘휘휘 휘’ 불며 ‘바다’, ‘산’, ‘숲’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바람을 부러워한다. 더불어 ‘나는 여기 섰다’라며 자신의 처지를 바람에 대비시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푸른 곳으로 갈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은 결국 ‘푸른 나무’처럼 홀로 고독하게 서 있는 풍경으로 제시된다.

이 시는 푸른 상상력이라 해도 좋을 만큼 청색의 이미지로 채색되어 있다. ‘바다’, ‘산’, ‘숲’은 청색의 이미지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화자에게는 고향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특정한 장소를 대신하는 청색은 그에게는 ‘모성’이며 ‘고향’이다. 어느덧 청색에서 움트는 ‘그리움’은 푸른 장소에서 ‘그리운 그 품’, ‘그리운 그 눈!’으로 좁혀들어가고 있다. 이는 청색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연으로부터 구체적인 인간사의 영역으로 좁혀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마음 상태는 화자가 성장하면서 정신 속에 형성된 고향의 색채 이미지가 인간에 대한 그리움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상이라고<sup>50)</sup>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봤을 때, 화자의 고향은 산촌일 수 있고 어촌일 수 있다. 또는 동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장소가 푸른 색채어로 묶여지는 자연 공간이라는 것

49) 『朴斗鎭全集1-해』, 68~69면.

50) 박영수, 앞의 책, 9~10면.

이다. 이렇게 화자가 청색을 통해 그가 ‘자라난’ 곳을 그리는 것은 잠재적으로 각인된 청색의 색채 감각이 그의 뇌리에 ‘고향은 푸른 것이다’라는 것으로 침투되었기 때문이다.<sup>51)</sup> 이것은 식물성을 대표하는 색채, 즉 청색이 자연에 둘러싸인 고향의 장소적 이미지와 서로 맞물리기에 가능하다.

내 여기 한 이름 없는  
적은 마을에 태어나

바람과 土壤과 父母와  
따사한 햇볕에 안겨 자랐으나

어머니의 젖  
달큰한 젖의 품을 벗어나  
외따로 걷는 마을길에 서서  
처음 우러러 하늘을 볼때부터

이내 자고 새면 그리워 온  
머언 그  
또 하나 나의 하늘.

—「薔薇의 노래」의 부분<sup>52)</sup>

마치 요나 콤플렉스처럼 ‘바람과, 土壤과, 부모와, 따사한 햇볕’은 화자가 고향의 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 무의식 속에 침투된 이미지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화자에게 근본적인 회귀본능을 일으키는 고향으로 대변된다. 화자가 ‘어머니의 달큰한 젖의 품을 벗어나/외따로 걷는 마을길에 서서/처음 우러러 하늘을’ 봤을 때의 그 하늘이 먹구름이 낀 하늘인지, 석양의 하늘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시의 주조를 감안하여 파악했을 때 푸른 하늘이라 여기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왜 화자는 고향을 떠나오면서 우러러 보았던 ‘하늘’을 표장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바람과 土壤과 父母와 따사한 햇볕’ 중에서도 특히 ‘하늘’은 화자의 그리움을 표면화시키는 핵심적 자연물로 활용된다. 여기에서 자연색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색이 있으니 바로 자연색이다. 자연색이란 인간이 자연에서 느끼는 색채를 말하며 개인의 성장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sup>53)</sup> 이에 따라 우리는 화자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의 하늘에서 강하게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박두진 스스로도 자신이 체험한 ‘높고 푸른 창공의 하늘’이 그의 시적 작업의 상당한 자원이 되었음을 밝힌 바<sup>54)</sup> 있다는 것은 이러한 추측에 일면 타당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51) 이는 박두진의 제2시집 『午禱』에 수록되어 있는 「故郷」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 “故郷 이란다. 내가 나서 자라난 故郷 이란다. 그 먼, 눈 날려 휘쓸고, 별도 열어 떨던/밤에, 어딘지도 모르며 내가 태어 나던 곳, 짙자리에 떨어져 첫소리 치던, 여기가 내가 살/던 고향 이란다.// 靑龍山 옛날같이 둘러워 있고, 우러르던 옛 하늘 푸르렀어라.”

52) 『靑鹿集』, 105~106면.

53) 박영수, 앞의 책, 8면.

54) 박두진은 “나의 시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되는 짙 짙 끓는 해, 높고 푸른 창공의 하늘, 영원을 반짝이는 웅대한 별밭, 잔잔하고 노하고 영원히 잠잠할 수 없는 바다, 찌를 듯 솟아오르고

본다면, 이 시에서의 ‘하늘’은 고향을 환기시킴으로써 화자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잠재적 매개물로 역할한다.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면 할수록 그는 청색의 이미지에 그만의 상징을 만들어 놓는다. 그럼으로써 화자는 그 청색의 매개물에 의탁하여 자기의 고향회귀의 감정을 이입하려는 욕구를 보여준다. 이렇게 박두진이 구사하는 색채어가 고향과 교점을 이룬다는 점은 그의 독특한 색채 이미지 구현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짙! 울리도록 맑았어라. 어린 어린 타오르듯 구만리나 푸르러라.

빙빙빙 돈다는 지구 위에서, 지구에도 바닷가에 나 혼자 앉아, 짙 물결 푸른 물에 손을 잠그면,

바다는 되돌아서 다시 오면서, 어얼사 나를 안고 가자고 한다. 머물리 海心으로 가자고 한다.

하이얀 모래 밭 고운 沙 위에 깔려있는 그리운 조개 껍질은, 아롱 아롱 어릴 적 꿈을 일깨워 한나절 바닷 가를 헤매게 하고,

—「바다1」의 부분55)

‘푸른 물’과 ‘하이얀 모래 밭 고운 沙’는 청색과 백색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인상으로 펼쳐진다. 동시에 이 배경을 중심으로 ‘빙빙빙’ 도는 지구와 ‘타오르듯’ 푸른 날, ‘되돌아 다시 오’는 바닷물 등은 싱싱하고도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구만리나 푸르’른 날에 화자는 ‘짙 물결 푸른 물에 손을 담’근다. 그 순간 그는 ‘머물리 海心’으로 되돌아가자는 바다의 목소리를 환청처럼 듣게 된다.

이 시에서 추출해볼 수 있는 것은 색채 이미지와 자연의 연결 방식과 그 의미, 그리고 상징의 구현방식이다. 이를 보면, 청색의 이미지가 구체적인 ‘바다’나 ‘물’과 연결됨으로써 ‘海心’이라는 추상어와 결부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푸른 물’은 언제나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의 근원이며, 이는 곧 이상적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sup>56)</sup> 다시 좁혀들어가면 ‘푸른 물’은 화자가 ‘어릴 적’에 체험한 하나의 장소나 배경을 의미한다. 이때 화자의 마음을 키우고 또 화자의 마음이 닳을 내린 세계가 바로 ‘海心’이다. 따라서 ‘海心’은 바다에서 꿈을 키웠던 유년의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의 반영이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海心’은 청색의 이미지, 즉 ‘푸른 물’을 통해 환기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화자는 ‘푸른 물’에 손을 담금으로써 ‘바다’와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듯이, 현실과 유리된 ‘海心’의 세계와 해후하고자 한다. 그래서 화자는 ‘아롱 아롱 어릴 적 꿈’의 편린들을 찾아 나선다. ‘한나절 바닷가를 헤매게 하’는 ‘조개 껍질’을 매개로 무한한 ‘海心’의 세계에서

유유히 침묵하는 산들의 실체와 그 불변 가변의 심상이 다 이때 이 천혜의 환경과 그 체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며 그에게 원체험을 제공한 고향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박두진, 자연·인생·시, 『문학적 자화상』, 한글, 1994, 52면).

55) 『朴斗鎭全集1-해』, 84면.

56) 색채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청색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으로서 무정한 일상생활로부터 도피시켜주기도 하고, 성인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게도 하는 색이라고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평소 꿈꾸고 있는 이상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박영수, 앞의 책, 78면).

유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개 껍질’은 화자의 과거 현재의 간극을 이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조개 껍질’조차 ‘그리운’ 화자의 ‘海心’은 고향과 분리되어 그 정신의 구심점이 회석되어가는 화자에게 있어 회귀해야 할 동심의 세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바다에서 자라난 나래 하얀 새, 바다에서 자라난 나래 흰 새야. 어서 너 여기 내게로 와 앉으라.

하늘엔, 높이, 오늘도 구름만 노을져 타고, 바람도 잠자려, 휘휘 휘 기슭으로 숲을 찾아 드는 저녁, 다만, 여기, 오오래 너를 바라 혼자만 섰는 나무, 아늑한, 내 품, 푸른 잎의 그늘에 와 앉으면,

나는, 이 밤, 자지 않고 너를 지켜, 도는 하늘, 내 잎잎을 밟고 가는 빛나는 별빛으로, 네, 잠든 눈, 어리는 꿈의 위에, 하늘을 빛내주고,

고이 접은 네 두 나래에선, 나는 겹겹이 지니었던, 내, 머언, 그, 빛나는 바다에의 향수를 더듬으며, 다만 여기, 널 안고 이 한밤 서서 살다가,

밤이 다한 아침— 새로 솟는 해를 맞아, 내 함빡 은 몸에 빛을 입고 서면— 나는, 있는 손 다아 들어 기뻐처럼 흔들며, 햇살 입고, 흰 나래 다시 훨훨, 바다로 가는 너를 이별해 주마.

— 바다로」의 전문57)

여기서 보면 ‘바다—바다에서 자라난 하얀 새—푸른 나무로서의 화자’라는 이미지리의 연결고리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청색의 이미지와 백색의 이미지의 조화는 하나의 평화로운 그림을 연상케 한다. 먼저 화자는 ‘새’라는 상징물을 매개로 자신의 고향 회귀에의 염원을 투영한다. 이러한 염원을 화자는 ‘빛나는 바다에의 향수’라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와 바다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 이는 화자가 바다와 유리된 채 ‘숲’의 ‘나무’처럼 있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온 새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이기에 가능하다. 새와 화자는 서로 구별할 수 없는 지점에 놓여 동일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우선 새는 화자의 ‘품’ 안에 들어와 그대로 혼연일체가 된다. 그리고 화자는 새를 통해서 바다와 만나는 순수한 기쁨을 맛본다. ‘새’의 ‘나래’를 ‘더듬’으며 ‘겹겹이 지니었던, 내, 머언, 그, 빛나는 바다에의 향수’를 음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자의 ‘새’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자연과의 교감이거나 융합하는 경지가 아니다. 두 존재 자체가 구별되지 않는 영혼의 합일을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로로 ‘바다’를 찾아들어가므로, ‘새’를 품은 화자의 시선이 본래의 바다에 맞닿아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화자의 고향이 왜 바다인지는 그 논리가 모호하다. 그는 ‘나무’로서 있으며, ‘숲’과 ‘바다’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 다만 바다를 향수의 근원지로 파악하는 근거는 바로 청색의 이미지에 있다. 청색은 피안의 세계를 표상이며 이 ‘바다’라는 자연색은 모성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청색의 이미지로써 향수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색채 의식을 추

57) 『朴斗鎭全集1-해』, 87~88면.

측할 수 있다. 결국 바다는 옮겨갈 수 없는 운명 바깥의 이상적인 세계이지만, 언젠가 회귀해야 할 근원적인 고향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다.

① 구름이 간다. 구름이 간다. 청산을 넘어 구름이 간다. 아무도 오지 않는 푸른 산 봉우리, 이끼 낀 푸른 돌 바위에 앉아, 나는 혼자서 구름을 본다.

휘휘 휘 불어오는 푸른 산 바람. 컷가를 불어가는 푸른 산 바람. 바다로 불어가나? 바다가 그리워라. 먼멀리 파도 치는 바다가 그리워라. 짙 푸른 짙 물결 파도 소리에 메마른 귀가 젖는 바다가 그리워라.

하늘도 좋고, 구름도 좋고, 머루랑 다래랑 으름도 좋고, 사슴도 골짜기도 산바람도 좋은 데, 어찌서 오늘은 나 홀로 앉아, 먼멀리 파도치는 바다가 그리울가.

—「海愁」의 부분<sup>58)</sup>

② 바다가 와락  
달려든다.  
내가 앉은 모래 위에……

가슴으로,  
벽찬 가슴으로 되어  
달려오는,  
푸른 바다!

바다는,  
내게로 오는 바다는,  
와락 와락 거센 물결,  
날 테릴러 어디서 오나!

귀가 열려,  
머언,  
바다에서 오는 소리에  
자꾸만, 내, 귀가 열려,

나는 일어선다.  
일어서며,  
푸른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  
쩨병쩨병  
머언 바다 위로 걸어가고 싶다.

—「바다2」의 부분<sup>59)</sup>

인용시 ①에서 화자의 감각은 바람조차 ‘푸른 산 바람’으로 인식할 만큼 청색에 사로잡혀

58) 『朴斗鎭全集1-해』, 86면.

59) 『朴斗鎭全集1-해』, 89~90면.

있다. 그의 시각적 감각의 연결고리는 ‘청산—푸른 산 봉우리—이끼 낀 푸른 돌 바위—푸른 산 바람—바다’의 변주 과정을 보여준다. 푸른 시각적 감각의 연쇄는 곧 ‘바다’를 향한 화자의 ‘그리움’의 경로이다. 이때 청색의 이미지의 통일성은 화자의 ‘그리움’이 ‘바다’로 수월하게 옮겨가는 데 효과적인 시적 장치로 활용된다.

제2연에서 ‘바다로 불어나?’와 ‘바/다가 그리워라. 머물리 파도 치는 바다가 그리워라’는 바람처럼 바다와 결합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으로 표출된다. 이어 ‘질 푸른 짠 물결 파도 소리에 메마른/귀가 젖는 바다가 그리’운 화자는 ‘海心’을 상실한 채 건조해진 자신의 현실을 응시한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를 통해 자신의 ‘메마른’ 내면을 발견하는 것이다.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는 ‘바다’는 지금까지의 시가 그렇듯 향수를 해결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산과 바다의 간극을 메우는 청색의 통일적 이미지는 화자의 원초적 장소인 ‘바다’로 흘러가기 위한 통로이다. 이러한 그리움은 인용시 ②에서 좀더 숨가쁘게 전개된다. 이 시의 ‘벽찬 가슴으로 되어/달려오는,/푸른 바다!’에서 달려가는 주체는 ‘푸른 바다’가 아니라 화자이다. 화자는 ‘푸른 바다’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인 양 표현하지만, 그 이면은 오히려 ‘푸른 바다’를 향해 내달리는 그의 ‘벽찬’ 감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내게로 오는 바다는,/와락 와락 거센 물결,/날 데릴러 어디서 오나!’ 역시 ‘바다’로 회귀하고 싶은 화자의 강렬한 욕망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푸른 물 위로 걸어가고 싶’, ‘쩨병쩨병/머언 바다 위로 걸어가고 싶’은 화자의 욕망은 가장 몽상적이면서도 가장 동적인 그리움의 표출로 나타난다. ‘어찌서……바다가 그리울가’라는 화자의 물음처럼 ‘푸른 바다’는 청색의 이미지로 각인된, 화자가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향의 원형이다.

이렇게 청색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의 회귀본능은 다음 인용시 『雪岳賦』에서 집약되어 드러난다.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꼴까? —내 永遠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白骨이 이런 양지쪽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 雪岳賦』의 부분<sup>60)</sup>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꼴까?’라는 화자의 물음에는 해답이 바로 뒤따라온다. 화자 자신도 알 수 없는 ‘산’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은 ‘내 永遠한 어머니……’에 이르러서야 그 원인이 확연하게 밝혀지는 탓이다. 산이 곧 화자의 ‘永遠한 어머니’라는 망설임 없는 은유는 ‘청산’과 ‘어머니’의 관계를 직설적으로 밝히는 차원이다. ‘산’은 화자를 낳은 어머니와 동일화됨으로써 모성의 의미에서 확대되어 화자의 회귀본능을 자극하는 고향의 의미로 귀결된다.

이렇듯 ‘청산’은 박두진 시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시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왜 그는 ‘산’이 아닌 ‘청산’을 노래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바람조차 ‘푸른 바람’으로 받아들일 만큼 청색의 세계에 대한 생래적인 신념이 존재한다. 즉, 청색의 세계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싱싱한 생명력의 세계, 변색하지 않을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이자 피안의 세계, 지상의 삶의 조건을 초월하는 세계라는 등식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요나컴플렉스처럼 이

60) 『靑鹿集』, 95면.

청색의 세계는 그에게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주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다. 이때 그의 심리적 줄기가 청색이라는 자연색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까닭에 ‘청산’은 박두진 자신이 마땅히 회귀해야 할, 그의 본능이 끝끝내 움직여 가야 할, 그의 ‘白骨’이 묻혀야만 하는 시적 장소가 된다.

## 결론

지금까지 박두진 초기시집, 『靑鹿集』, 『해』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박두진의 시는 다양한 색채어를 텍스트 속에 활용함으로써 색채 속에 숨어 있는 독특한 상징을 구현하고 있다.

색채 상징은 박두진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습득된 하나의 기호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두진이 구사하는 색채어에는 그가 경험한 원초적이고도 주관적 체험의 감각이 우선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두진 시의 색채어는 단순히 이미지의 채색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박두진 개인의 특별한 심리 상태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박두진 자신이 체험한 색채 감각을 시 속에 재현할 경우, 어떤 색채어가 두드러지고 그것이 어떤 상징으로 기능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의 색채 의식의 한 단면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사상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박두진의 색채 이미지와 그 의미는 흑색의 이미지, 금색의 이미지, 적색의 이미지, 청색의 이미지를 주요 동기로 한다. 이 네 개의 색채 이미지는 보편적인 색채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그 작품의 주제에 특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흑색의 이미지는 절망과 공포의 현실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박두진 시에서 흑색의 이미지는 ‘빛’과 이항대립하는 ‘어둠’의 세계를 표상한다. 이 어둠의 세계는 시인의 어둡고 불행한 내면과 즉각적으로 연결된다. 그럼으로써 그의 텍스트 속에서 항일성의 추구라는 시적 특징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둘째, 금색의 이미지는 초월과 영원의 불멸성으로 추구된다. 박두진은 인간의 유한성을 초월하기 위하여 금색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금색의 상상력 속에서 불멸의 기원을 노래한다. 이때 ‘황금’이라는 금속의 특질에 이입된 개인적 환상은 박두진 시의 한 특질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셋째, 적색의 이미지는 투쟁과 강렬한 생명력으로 표상된다는 점이다. 적색의 이미지는 한 텍스트에서 서로 상충하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박두진은 치열한 대결의식을 보여줄 때, 뜨겁고 왕성한 생명력을 노래할 때 이 적색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상반되는 색채의 상징은 그의 시의 긴장을 직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생을 뜨겁게 포용하는 시인의 태도와 함께 조화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의 강렬한 상승의 이념을 구체화시킨다.

넷째, 청색의 이미지는 이상 세계 안에 고향회귀의 욕망을 배태하고 있다. 이 청색은 박두진 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색채어이다. 청색이라는 자연색은 넓게 보면 이상 세계에의 염원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좁혀들어가면 시인의 향수에의 갈증을 풀어주는 매개체로 추구된다. 이는 박두진 시의 궁극적인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색채가 여러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두진은 이 네 개의 색채 이미지로써 자신의 정서적 작용을 텍스트 속에 형상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박두진 시는 인간의 색채적 상상력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박두진의 시는 보편적 색채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적 상징으로 나아가는 노정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의 색채어 하나 하나는 시의 주제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통해 독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수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두진 시에 나타나는 색채 이미지는 그의 전체 시에 대한 단선적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본고가 주목했듯이 색채 이미지가 상징적 의미를 담당하여 그 시의 주제에 특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 색채 이미지는 그의 전체 시가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다. 만약 박두진 시의 색채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지향점을 향해간다면, 이를 따라감으로써 그의 사상의 유로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두진·박목월·조지훈. 『靑鹿集』. 을유문화사, 1946.  
박두진. 『해』. 『朴斗鎭全集1』. 汎潮社, 1982.

### 2. 논저, 기타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 1995.  
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바슐라르, 가스통, 『불의 정신분석』. 민희식 옮김. 삼성출판사, 1982.  
박두진. 『문학적 자화상』. 한글, 1994.  
\_\_\_\_\_.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92.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살림, 2003.  
신진. 『『청록집』의 색채이미지 연구』. 『국어국문학』 제4호, 1982. 1.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장영수 옮김, 청하, 1989.  
임영주. 『박두진의 생애와 문학』. 국학자료원, 2003.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개관』. 정음사, 1974.  
채수영. 『한국현대시의 색채의식 연구』. 집문당, 1987.  
파버·비렌. 『색채심리』. 김화중 옮김. 동국출판사, 1993.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6.  
하워드 선·도로시 선. 『색채심리와 색채치료』. 나선숙 옮김. 예경, 2003.  
황송문. 『신석정 시의 색채 이미지 연구』. 국학자료원, 2003.

<Abstract>

## Color Images appeared at Park Do-jin's initial Poetry — 『Cheongrokjip』, attaching importance to 『sun』

Lee, Ji-won

This article was originally begun to light on Park Do-jin's Poetry in the plus side. We need to review the customary approach that we have typically cut his poems upon the biographical fact. By analyzing color images mainly - one of the important poetic representation, I tried to make foundation that help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Poetry variously.

A imaginative and various color languages in Park Do-jin's Poetry make us understand his Poetry from different angles with the potential of open access. This color images are not only a device making Park Do-jin's poetic world possible but a key deciphering his Poetry. In other words, If there are certain color images appearing repeatedly, the images will be a standard explaining his poetic world. If this article opens possibility that helps understand his Poetry with different viewpoint, there is sense in studying. In summary, this discussion follows;

First, black image expresses reality of despair and fear. This is the dark side of the poet's unfortunate inside. Therefore, this image is used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the pursue of heliotropism- of the poetic. Secondly, the golden image expresses the pursuit of transcendence and immortality. Park Do-jin used golden image to transcend human's finite and wished immortality in golden imagination. An individual illusion empathy with metallic characteristic is a aspect showing Park Do-jin's poetic characteristic. Thirdly, the red image is a symbol of struggle and intense vitality. By using red image, Park Do-jin gave shape to his intense ideology of rise when he described a fierce confrontation consciousness and hot, hearty vitality. Fourth, the blue image is germination of desire to return home in ideal world. This color makes up most of percentage in his color images. Blue widely symbolizes the aspirations of the world. But, when going through the narrow poetic meaning, blue is medium resolving thirsty of nostalgia. This can be called ultimate voice of Poetry.

As a result, Park Do-jin's color images in Poetry are one of his approaching ways over deep-rooted biases. As I studied, if the color plays a symbolic role and maintains consistency, it is a key to determine his Poetry. If his Poetry moves toward certain place, by following that, I think we can find the flow of his thought.

<Key Word>

Black image, Red image, Golden image, Blue image, Despair, vitality, Ideal world, Immortality